

# 전북대, 교육부 재정지원 '전국 7위'

### 대학특성화·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8개 사업 선정 246억 5100만원 지원금 확보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2016년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으로 국내 대학 가운데 7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제시한 10개 주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지원액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는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을 비롯해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 두뇌한국(BK) 21+,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 인문역량강화사업(CORE),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선정돼 246억 51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전북대는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을 통해 연간 70억 원씩을 지원 받고 지난해 역시 대학가의 뜨거운 화두였던 인문역량강화사업에 연간 30억 원씩을 지원받게 돼 두 사업 모두 지원금 규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전남대와 컨소시엄을 통해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에서도 신규 선정돼 3년 동안 150억원의 지원을 받아 여성 공학도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대가 포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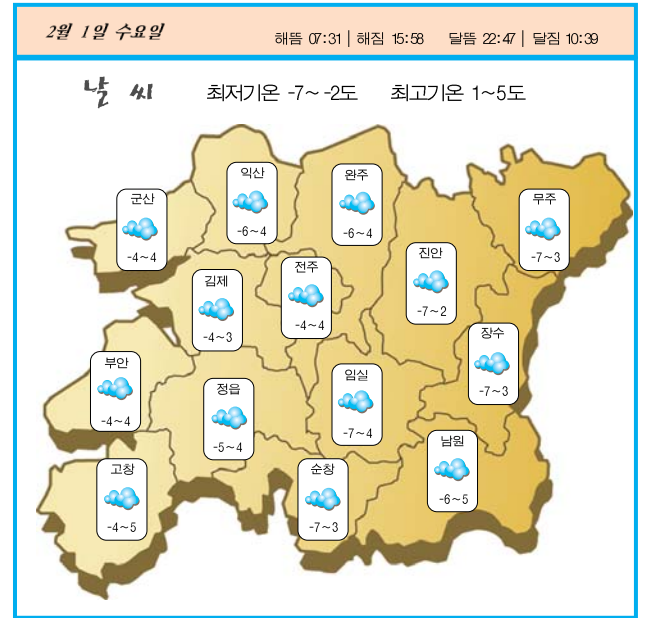


대학가는 방구하기 전쟁 중 신입생 합격자 발표와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 방구하기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달 31일 오전 어느 대학교 앞에는 원룸 및 하숙을 놓는 전단이 빼곡히 부착돼 있다.

재를 키우는 데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33만원으로 5,000명

이상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총장은 "우리대학은 대학재정이 어려워도 학생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이려 안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유치에 더욱 노력해 학생들이 모험안재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전주 근지·덕일중 이전설립 여론조사 오차범위내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 교육발전민간협력위원회는 원도심 중학교 이전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전대상 학교인 근지중학교와 덕일중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달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학교별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다.

근지중 이전 설립에 대해 근지중 학부모 및 교직원은 '반대' 한다는 응답이 68.7%로, '찬성' 한다는 응답(31.3%)보다 37.4%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전주시민(9백명)은 '찬성' 한다는 응답이 53.8%로, '반대' 한다는 응답(46.2%)보다 오차범위(±3.3%p) 밖인 7.0%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어 근지중학교 이전 설립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 이 51.9%, '반대' 가 48.1%로 나타났다. 덕일중학교 이전 설립에 대해서 덕일중 학부모 및 교직원은 '찬성' 한다는 응답이 50.7%, '반대' 한다는 응답은 49.3%로 두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주시민도 '찬성' 한다는 응답이 49.9%, '반대' 한다는 응답은 50.1%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사되어 덕일중 이전 설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 이 49.9%, '반대' 가 50.1%로 나타났다. /정해은 기자

##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 81% 만족 · 청렴도 '우수'

전북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정책이 긍정하며 청렴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일에 단행한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불만족은 9%에 불과했다.

또 인사의 청렴도를 묻는 질문에는 우수 80.2%, 보통 17.9%, 미흡 1.9%로 나타나 대부분 청렴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

해선 만족 72%, 보통 23.5%, 불만족 4.5%로 나타났으며 전보서열부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84%가 만족감을 표했다. 불만족은 1.5%에 불과했다.

근무 희망지 배정에 대해서 79.4%가 만족하다고 답변했으며 보통 14.8%, 불만족 5.8%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으며 인사대상자 162명이 포함 총 361명이 참여했다. /정해은 기자

## 탄소난방기 설치로 공원화장실 따뜻해진다

### 전주시, 기린공원 등 완산구 29개 공원화장실 69곳에 탄소난방기 설치

전주시가 미래1업의 쌀로 불리는 최첨단 탄소소재를 이용해 공원화장실을 따뜻하게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화장실 조성을 위해 올해 총 4200만원을 들여 기린공원 등 완산구 29개 공원에 설치된 난방기를 탄소난방기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탄소난방기가 설치되는 화장실은 29개 공원에 설치된 남부화장실 29곳과 여자화장실 29곳, 장애인화장실 11곳 등 모두 69곳으로, 시는 오는 2월 중 공원화장실 난방기 교체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공원화장실에 설치된 난방기의 경우 겨울철 동파로 인해 유지관리가 어렵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사용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완산구에 위치한 56개 공원에 대한 전주조사를 통해 화장실 난방기의 제품 노후화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고 연료 효율성이 떨어진 공원화장실 26곳에 탄소난방기를 설치기로 결정했다. 시는 기존 노후화된 라디에이터 방식의 공원 난방기가 전장형 탄소난방기로 교체되면 시민들이 보다 따뜻하게 공원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170여만 원을 들여 나들목공원과 유적지공원 등 덕진구에 위치한 노후화된 공원화장실 난방기구 26대를 탄소난방기로 교체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4년 11월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를 위한 쉼터(다가동 이씨간접집 옆 버스정류장)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전주시 성장동력사업인 탄소산업의 대표적인 실용화제품인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해왔다.

학교 주변과 전통시장 인근,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에 하나씩 설치된 탄소발열의자는 매년 11월부터 3월 말까지 가동되면서, 겨울철 영하 10℃ 인파를 오가는 추운 날씨 속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잠시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원화장실 내 난방기가 노후화되면서 제이기 오류가 발생하는 등 오작동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동파 및 동결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면서 "탄소난방기 교체를 통해 겨울철 동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북대 평생교육원 2017년 1학기 수강생 모집

지역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윤정수)이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복지하부와 생활교양하부, 스포츠건강하부, 어문하부, 직업교육하부, 예술하부 등 6개 학부 208개 과정에 302개 반이 개설됐다.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17일까지며 방문과 전화(063-288-0022), 인터넷(<http://cc.jnu.ac.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는 6개 일반 평생교육과정뿐 아니라 학위나 각종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아동학(아동가정 전공)과 보육교사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 취득과정이 마련돼 있다.

또한 전북대 학생들과 수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명예학생 과정과 민간 자격증 취득 및 교양과정 등도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정해은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야?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